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 2026년 09월 09일

HANA Global Weekly



하나 하나증권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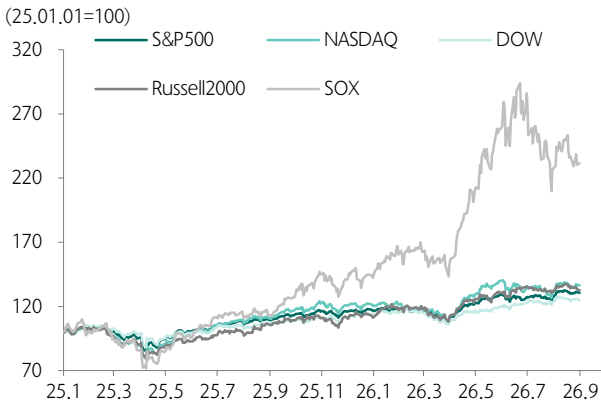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증시 동향

- 미국 8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 대비 16만 2천 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함. 이에 따라 금리 인상 우려가 재부각되며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
- 한편, 오픈AI의 신규 모델 '아스트라(GPT-6 Astra)'가 공개되며 AGI(범용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킴. AI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됨과 동시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감이 확산되며 반도체 관련주는 상승

종가 기준일: 2026.09.07

미국 주요 지표 그래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종가 (pt)	1D (%)	1W (%)	1M (%)	YTD (%)
지수	S&P500	7,718.6	(0.4)	0.1	(0.5)	12.8
	NASDAQ	26,507.0	(0.3)	0.4	(0.7)	14.1
	DOW	53,414.3	(0.5)	(0.3)	(1.2)	11.1
	Russell2000	2,975.7	0.3	0.1	(1.9)	19.9
	SOX	11,735.3	3.4	2.3	(5.0)	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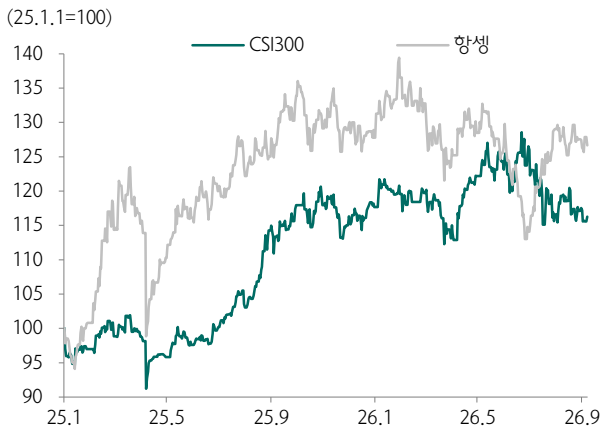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중국 증시 동향

- 중국 본토 증시는 OpenAI의 차세대 LLM 'GPT-6 Astra' 출시 소식에 글로벌 기술주 반등에 동조화. 그러나 위험선호 회복은 다소 제한적으로, 단기적으로 상해종합지수의 3,900선 지지와 성장주 중심의 매도세 진정 여부 확인 필요
- 이번주에는 화웨이, 샤오미, 애플의 신제품이 잇따라 공개되며 이른바 '3강 동시 맞대결'이 전개될 예정. 화웨이는 7일 '메이트 XT 2'를 공개하고 자체 운영체제인 하모니OS 7을 최초 탑재. 샤오미 역시 7일 '18 폴드'를 공개하며 자체 개발한 '쉬안제 O3' AI 플래그십 프로세서를 처음 공개. 애플은 9월 10일 새벽 발표 예정으로, 3대 브랜드의 프리미엄 시장 정면 경쟁 주목

종가 기준일 : 2026.09.07

중국 주요 지표 그래프



자료: Wind, 하나증권

		종가 (pt)	1D (%)	1W (%)	1M (%)	YTD (%)
지수	CSI300	4,575.0	0.6	(1.1)	(1.1)	(1.2)
	항셍	25,413.1	(0.9)	(0.6)	(0.6)	(0.8)

자료: Wind, 하나증권

다음주 주요 이벤트 및 관전 포인트

	날짜	시간	중요도	관전 포인트
거래소, 애프터마켓 거래시간 연장	9/14	09:00	★★	애프터마켓 거래시간 오후 4시~8시로 연장
미국 FOMC(경제전망)	9/17	03:00	★★★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3.50~3.75%로 동결
영국 BOE 통화정책회의	9/17	20:00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3.75%로 5연속 동결
일본 BOJ 금융정책위원회	9/18	12:00	★★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1.00%로 매파적 동결

자료: 블룸버그, 하나증권

투자 유망 ETF

SPHQ (Invesco S&P 500 Quality ETF)	KBWB (Invesco KBW Bank ETF)	CHAT (Roundhill Generative AI & Technology ETF)	CIBR (First Trust NASDAQ Cybersecurity ETF)
SMH (VanEck Semiconductor ETF)	PAVE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F)	GRID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 Index Fund)	XBI (SPDR S&P Biotech ETF)

투자 유망 종목

엔비디아 (NVDA.US)	알파벳 (GOOGL.US)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	AMD (AMD.US)	캐터필러 (CAT.US)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CRWD.US)	발레로 에너지 (VLO.US)	블룸 에너지 (BE.US)	레노버 (0992.HK)	자금광업 (2899.HK)

실적 발표

기업명	티커	발표 날짜	컨센
오라클	ORCL	9월 10일 장후	FY26 1분기 매출 191.4억, EPS 1.74 달러
어도비	ADBE	9월 10일 장후	FY26 3분기 매출 67.0억, EPS 6.08 달러
크로거	KR	9월 11일 장전	FY26 2분기 매출 345.4억, EPS 1.05 달러

금주의 리포트

기업/산업명	제목
팔로알토(PANW.US)	놀라운 숫자, 그 이상의 스토리
스노우플레이크(SNOW.US)	AI 시대, 더 빛나는 데이터 플랫폼의 가치
H.P. Enterprise Co. (HPE.US)	수요는 충분, 공급망 확보가 관건
Dell Technologies (DELL.US)	FY 2Q27: AI 수요와 이익 개선이 맞물리는 선순환
GE 버노바(GEV.US)	스페이스X의 가스터빈 진출 코멘트
Lenovo(0992.HK)	서버 시장에서 존재감 커지고 있는 글로벌 1위 PC 제조사
조위기전	마이크로 트랜스미션 기술, 휴머노이드의 손으로

글로벌 섹터별 트렌드_선진국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종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세계	1.3	0.5	4.7	21.1	14.1	0.0	0.2	0.6	1.6	1.4	16.7	16.6	17.3	17.6	19.1	19.7	14.9	3.3	3.3	3.3	3.3	3.1	3.4	2.3	
에너지	-0.8	8.3	8.0	40.8	35.0	0.0	0.2	0.2	2.6	2.7	12.6	12.8	11.9	12.1	13.4	17.4	9.0	1.9	2.0	1.8	1.9	1.6	2.1	1.4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정보기술, 에너지, 금융
소재	0.9	2.7	6.8	27.0	16.0	0.0	0.1	-0.0	1.8	1.2	15.6	15.6	15.4	14.4	17.3	17.7	13.1	2.4	2.4	2.3	2.2	2.0	2.5	1.6	
산업재	1.5	-3.1	1.6	17.3	12.6	0.0	0.1	0.4	0.8	0.8	20.8	20.7	22.2	22.1	21.7	24.6	15.8	4.0	3.9	3.5	4.0	3.7	4.2	2.5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필수소비재, 건강관리
자유소비재	0.2	-4.0	0.7	-2.7	-4.3	0.0	0.0	0.4	0.6	0.4	19.2	19.2	20.1	20.4	22.4	23.0	16.2	3.2	3.2	3.3	3.3	3.6	3.8	2.8	
필수소비재	-0.7	-2.1	1.2	2.1	4.2	0.0	0.1	0.1	0.3	0.2	19.0	19.2	19.6	19.2	19.6	21.2	17.1	4.3	4.3	4.4	4.3	4.1	4.6	3.5	
건강관리	-0.2	1.9	9.8	16.7	6.6	0.0	0.1	0.2	0.3	0.3	18.5	18.5	18.4	17.5	16.8	20.2	15.7	4.2	4.2	4.2	3.9	3.7	4.3	3.4	
금융	1.9	1.3	12.3	18.7	11.5	0.0	0.2	0.4	1.1	0.8	13.3	13.1	13.4	12.5	13.2	13.7	9.8	1.8	1.8	1.8	1.7	1.7	1.8	1.2	
정보기술	2.3	1.9	4.4	45.0	31.3	0.1	0.5	1.2	3.2	2.7	17.0	17.0	18.4	20.7	26.7	29.6	16.9	6.9	6.9	7.2	7.7	7.5	8.5	5.4	
커뮤니케이션	1.8	-1.0	-3.0	3.0	-1.4	0.0	-0.1	0.2	1.0	0.9	17.1	16.8	17.1	18.1	19.9	21.2	15.3	3.3	3.2	3.3	3.6	3.8	4.0	2.3	
유틸리티	0.7	-1.5	-2.1	8.8	3.0	0.0	0.0	0.2	0.4	0.2	15.8	15.7	16.2	16.4	15.4	17.5	12.5	1.8	1.8	1.8	1.9	1.7	2.0	1.4	
미국	0.5	-0.5	4.7	19.1	12.8	0.0	0.2	0.5	1.3	1.1	19.5	19.3	20.3	20.5	22.2	22.9	17.2	4.6	4.5	4.7	4.6	4.5	4.8	3.3	
에너지	0.2	9.4	9.2	44.2	39.1	0.0	0.2	0.3	2.2	2.4	14.8	15.1	14.0	14.2	15.4	21.1	10.3	2.4	2.5	2.3	2.3	2.0	2.6	1.7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정보기술, 건강관리, 에너지
소재	-0.1	2.3	8.3	21.3	15.3	0.0	0.0	-0.0	1.7	1.1	17.1	16.8	16.8	15.6	20.1	21.4	15.2	2.9	2.8	2.9	2.6	2.7	3.3	2.0	
산업재	0.2	-5.2	-0.1	15.3	12.6	0.0	0.1	0.2	0.6	0.5	24.5	24.1	26.1	25.9	24.7	28.0	17.7	6.3	6.2	6.6	6.6	6.2	6.9	4.2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자유소비재	-1.3	-4.1	1.0	-0.3	-2.2	-0.0	-0.0	0.4	0.8	0.6	22.5	22.3	23.2	24.3	27.6	30.0	21.0	5.9	5.9	6.2	6.4	7.8	8.8	5.9	
필수소비재	-0.5	-1.5	-0.3	4.9	7.5	0.0	0.0	0.1	0.3	0.2	21.4	21.6	22.0	21.9	21.7	24.0	17.5	6.1	6.2	6.3	6.2	6.0	6.6	4.7	
건강관리	0.7	3.0	11.6	22.7	9.5	0.0	0.1	0.3	0.4	0.3	19.3	19.4	19.1	18.2	16.9	20.3	15.8	4.9	4.9	4.8	4.4	4.1	5.1	3.8	
금융	0.9	0.5	10.8	12.5	7.3	0.0	0.1	0.4	1.0	0.7	15.3	15.0	15.5	14.5	16.2	17.0	11.7	2.3	2.2	2.3	2.1	2.2	2.3	1.5	
정보기술	0.7	-0.4	6.0	33.3	23.4	0.1	0.4	0.8	2.2	1.7	21.0	20.8	23.0	24.3	29.1	32.3	19.5	9.3	9.2	9.7	9.8	10.4	11.5	7.4	
커뮤니케이션	1.2	-1.1	-3.7	7.4	0.3	-0.0	-0.1	0.3	1.1	1.1	17.6	17.2	17.6	19.0	20.2	22.4	15.4	3.7	3.7	3.8	4.3	4.5	4.8	2.8	
유틸리티	1.9	-1.7	-3.0	3.1	0.3	0.0	0.1	0.2	0.5	0.4	17.1	17.0	17.6	17.8	18.0	20.0	14.1	1.9	1.9	2.0	2.0	2.0	2.3	1.5	
일본	-0.2	1.6	3.8	35.0	21.7	0.0	0.3	0.7	1.7	1.4	16.1	16.3	16.7	17.0	16.6	19.1	12.3	1.9	1.9	1.9	1.8	1.6	2.0	1.1	
에너지	-0.2	5.8	5.5	49.4	23.0	0.1	-0.1	0.7	5.1	3.5	8.9	9.5	8.4	9.0	11.3	13.9	6.2	0.9	0.9	0.9	0.9	0.7	1.1	0.5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정보기술, 에너지, 건강관리
소재	-2.6	-3.7	-5.9	23.8	14.8	-0.0	-0.3	-0.0	0.3	0.3	16.8	17.5	16.8	17.0	14.5	19.3	10.4	1.5	1.5	1.4	1.4	1.0	1.6	0.8	
산업재	-0.9	1.4	4.9	36.6	19.5	0.0	0.1	0.4	1.1	1.0	18.3	18.9	18.6	18.5	17.1	22.2	11.6	2.1	2.2	2.1	2.0	1.7	2.3	1.2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금융, 소재
자유소비재	-3.2	-1.0	4.9	12.3	6.0	0.0	0.3	0.9	1.4	0.7	15.6	16.3	16.5	17.0	17.9	18.3	10.1	1.4	1.4	1.4	1.4	1.4	1.6	1.0	
필수소비재	-2.9	-3.5	10.8	8.9	3.8	0.0	0.1	0.3	0.7	0.3	20.4	20.9	21.6	19.7	21.7	22.9	18.2	2.0	2.1	2.2	1.9	1.9	2.2	1.6	
건강관리	-2.7	-1.5	4.0	7.4	1.8	0.0	0.1	0.0	0.5	0.4	17.3	17.9	17.8	16.4	17.5	23.4	15.2	2.1	2.1	2.1	2.0	2.2	2.5	1.8	
금융	0.6	2.7	13.8	57.0	42.2	-0.0	0.6	1.0	2.1	1.7	13.1	13.0	13.8	13.0	11.5	14.8	8.5	1.5	1.5	1.4	1.4	1.1	1.5	0.7	
정보기술	1.9	3.7	-5.4	88.3	49.1	0.1	0.6	1.5	3.7	3.4	16.5	16.3	17.7	21.4	22.7	28.5	15.7	4.0	3.9	3.9	4.1	2.6	5.2	1.8	
커뮤니케이션	5.6	7.3	0.7	9.6	12.0	-0.0	0.0	-0.2	0.8	1.0	20.3	20.0	19.6	19.4	23.5	28.3	16.3	2.5	2.4	2.3	2.3	2.9	3.4	1.5	
유틸리티	2.6	11.9	10.3	31.6	12.7	0.0	0.5	0.8	0.4	1.8	12.0	12.3	11.5	12.1	9.8	16.0	6.2	0.9	0.9	0.8	0.8	0.8	1.0	0.5	
유럽	-0.1	-1.5	4.5	18.3	9.9	0.0	0.1	0.2	0.9	0.7	15.1	15.0	15.5	15.0	14.9	16.3	11.6	2.3	2.3	2.3	2.2	2.0	2.3	1.6	
에너지	3.1	5.8	4.9	44.8	37.7	0.0	-0.1	-0.0	3.9	3.8	9.4	9.5	9.0	9.1	10.5	13.1	7.6	1.4	1.5	1.4	1.4	1.3	1.7	1.0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소재, 에너지
소재	-0.2	2.0	4.8	29.0	18.9	0.0	0.0	0.1	1.4	0.9	16.8	16.8	16.6	16.1	17.1	17.9	12.6	2.1	2.1	2.1	2.0	1.6	2.1	1.4	
산업재	-1.3	-4.0	1.9	14.8	8.8	0.0	0.1	0.3	0.6	0.5	21.1	21.1	22.4	22.1	21.6	24.2	15.5	3.9	3.9	4.1	4.0	3.7	4.2	2.6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건강관리
자유소비재	-2.6	-5.0	-1.0	-5.5	-12.9	-0.0	0.0	-0.1	0.0	-0.4	15.1	15.2	15.9	15.0	16.0	17.3	10.9	1.6	1.6	1.7	1.6	1.6	1.9	1.4	
필수소비재	-1.1	-4.4	2.3	-1.7	-0.7	-0.0	0.0	0.2	0.3	0.2	15.0	15.1	15.7	15.0	15.9	17.2	14.6	2.9	2.9	3.1	2.9	2.9	3.3	2.6	
건강관리	-0.6	-2.6	1.0	6.6	-1.3	-0.0	0.0	0.1	0.2	0.2	15.5	15.6	15.8	15.3	14.8	18.8	13.1	3.3	3.3	3.3	3.2	2.9	3.8	2.6	
금융	0.9	0.3	15.6	31.0	16.1	0.0	0.1	0.4	1.3	1.0	11.9	11.7	12.0	10.7	10.7	12.0	7.7	1.7	1.6	1.7	1.5	1.4	1.7	0.9	
정보기술	2.1	0.8	-2.3	55.9	35.9	0.0	0.1	0.5	1.1	1.1	27.0	26.5	28.4	33.3	25.7	34.4	19.0	6.1	6.0	6.1	6.7	4.7	6.9	3.5	
커뮤니케이션	-0.4	0.0	0.3	-8.4	1.3	0.1	0.2	0.3	0.7	0.4	15.3	15.4	15.6	16.1	18.6	19.7	13.0	2.1	2.1	2.1	2.1	2.1	2.2	1.2	
유틸리티	-1.9	-4.4	-3.0	24.4	8.8	0.0	0.1	0.2	0.7	0.4	14.6	14.7	15.4	15.4	13.1	16.2	11.1	1.9	1.9	2.0	2.0	1.6	2.0	1.4	

글로벌 섹터별 트렌드_신중국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증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신중국	1.7	6.0	2.3	37.7	25.1	0.1	0.5	1.5	4.5	3.9	9.9	10.0	10.0	11.2	13.4	14.0	9.6	2.0	2.0	1.8	2.0	1.8	2.2	1.4	
에너지	-0.1	4.7	4.5	19.2	10.9	0.1	0.4	0.5	3.0	3.1	8.9	8.9	8.7	8.8	10.1	11.4	7.3	1.3	1.3	1.2	1.3	1.1	1.4	1.0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정보기술, 자유소비재, 에너지
소재	0.7	4.4	9.4	32.4	9.8	0.0	0.1	0.1	3.1	2.1	11.7	11.7	11.4	10.4	13.9	14.8	10.0	1.8	1.9	1.9	1.7	1.5	2.2	1.0	
산업재	1.7	3.3	-0.5	26.4	16.4	0.0	1.0	1.8	3.9	3.8	10.7	10.8	11.9	13.1	15.2	17.6	10.5	2.0	2.0	0.9	2.2	1.8	2.6	0.7	
자유소비재	-0.7	-7.2	-7.2	-15.0	-14.8	0.1	0.1	0.4	-0.1	-0.1	12.5	12.8	13.6	13.7	14.7	16.1	10.9	1.6	1.6	1.6	1.6	2.0	2.2	1.3	
필수소비재	-0.6	-2.0	0.6	-8.3	-5.3	0.0	0.0	0.1	0.0	0.1	17.5	17.5	17.8	17.5	19.1	20.7	17.3	3.0	3.0	3.0	3.0	3.2	3.3	2.4	
건강관리	0.2	1.4	18.5	-1.1	9.2	0.0	0.0	0.1	0.3	0.3	27.5	27.6	27.4	23.3	30.3	30.3	22.7	3.7	3.7	3.6	3.1	3.8	3.9	2.6	
금융	1.5	4.2	10.6	17.4	10.2	0.1	0.3	0.5	1.2	0.9	9.5	9.4	9.3	8.8	9.1	9.9	7.1	1.2	1.2	1.2	1.1	1.1	1.2	0.9	
정보기술	3.0	13.8	0.2	135.1	84.1	0.1	0.8	3.0	8.7	7.7	8.5	8.6	8.3	11.3	16.1	18.0	7.8	3.3	3.4	3.2	4.2	2.8	4.8	2.1	
커뮤니케이션	-0.2	-5.7	-3.4	-18.3	-19.1	0.0	-0.2	-0.2	0.4	-0.0	13.6	13.6	13.9	13.5	17.9	19.1	12.8	2.1	2.1	2.2	2.2	2.8	3.0	1.9	
유틸리티	2.3	1.4	-0.3	6.6	3.8	0.0	-0.2	-0.1	-0.3	-0.8	12.7	12.5	12.2	12.4	11.4	13.6	9.8	1.4	1.3	1.3	1.3	1.1	1.4	1.0	
중국	-0.6	-3.2	-1.8	-10.7	-9.9	0.0	0.0	0.3	0.7	0.3	10.6	10.6	10.8	10.8	12.7	13.6	8.0	1.3	1.3	1.3	1.2	1.5	1.6	0.9	
에너지	-2.4	5.4	-1.6	27.0	18.1	0.2	0.3	0.3	2.4	2.3	9.5	9.7	9.1	9.8	9.6	12.2	5.7	1.0	1.0	0.9	1.0	0.9	1.1	0.7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에너지, 자유소비재, 금융
소재	-1.7	-2.7	2.0	19.9	-6.0	-0.0	-0.2	-0.0	3.6	2.6	10.2	10.2	10.2	9.4	13.0	16.8	8.5	1.8	1.8	1.8	1.7	1.7	2.6	0.9	
산업재	-0.3	-4.5	-7.9	2.7	-1.0	0.0	0.1	0.3	0.2	0.4	11.1	11.1	11.7	12.3	11.2	13.2	6.7	1.2	1.2	1.2	1.3	1.1	1.4	0.7	
자유소비재	-1.0	-9.5	-7.9	-23.1	-21.7	0.1	0.0	0.4	-0.4	-0.3	12.0	12.1	13.2	13.3	15.0	17.1	10.0	1.5	1.5	1.5	1.5	2.1	2.5	1.2	
필수소비재	0.9	-2.1	-1.4	-23.1	-14.4	-0.0	-0.1	-0.0	-0.1	-0.2	14.3	14.1	14.3	14.3	18.3	20.1	12.8	2.3	2.3	2.3	2.3	3.2	3.5	2.1	
건강관리	0.6	3.0	27.8	-6.7	15.7	0.0	0.1	0.3	0.5	0.6	26.0	25.5	25.4	20.9	32.1	32.1	18.9	3.3	3.2	3.2	2.5	3.6	3.6	1.8	
금융	-0.9	6.1	8.0	12.6	7.9	0.0	0.4	0.9	2.3	1.4	6.1	6.0	5.8	5.8	6.1	6.5	3.6	0.6	0.6	0.6	0.6	0.6	0.7	0.4	
정보기술	0.3	-0.2	-6.8	-6.3	6.3	0.0	0.4	0.7	0.6	0.5	21.8	22.2	24.7	27.2	27.4	30.4	12.7	3.2	3.2	3.1	3.3	3.7	4.0	1.3	
커뮤니케이션	-0.8	-9.3	-5.7	-27.8	-27.2	0.0	-0.5	-0.5	0.2	-0.3	12.5	12.4	12.8	12.1	17.9	19.7	11.2	1.9	1.9	2.0	2.0	3.0	3.2	1.7	
유틸리티	-0.1	2.8	-6.0	-5.5	-3.8	0.0	-0.1	-0.1	-0.6	-0.8	10.1	10.1	9.7	10.4	10.1	11.0	6.5	0.9	0.9	0.9	0.9	1.0	1.1	0.7	
인도	-1.5	-2.9	2.1	-0.4	-5.5	0.0	-0.0	0.2	0.5	0.4	19.7	20.0	20.2	19.6	22.0	24.5	19.0	2.9	2.9	2.9	2.8	3.3	4.0	2.8	
에너지	0.0	-1.9	-0.4	-2.7	-14.2	0.0	0.2	0.2	-0.1	-0.3	13.9	13.9	14.6	13.9	14.2	24.9	12.6	1.5	1.5	1.5	1.5	1.6	2.9	1.4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자유소비재, 에너지, 소재
소재	-0.5	-2.7	-1.7	8.4	3.6	0.0	0.1	0.9	1.8	2.0	16.3	16.2	16.8	19.0	20.9	25.0	16.2	2.6	2.5	2.6	2.7	2.8	3.1	2.3	
산업재	-0.4	-2.2	-0.6	15.0	7.9	-0.0	-0.0	0.4	0.5	0.4	31.0	31.1	31.4	35.4	31.8	39.6	27.2	6.4	6.5	6.8	6.7	6.5	8.7	4.9	
자유소비재	-2.1	-4.9	7.5	-1.1	-1.5	0.2	0.0	0.0	0.1	0.1	31.4	33.6	33.2	29.0	32.9	35.8	24.9	5.5	5.6	5.4	4.8	6.0	7.1	4.1	
필수소비재	-2.2	-7.9	-6.8	-16.9	-14.8	0.0	0.0	-0.0	0.1	0.0	37.1	38.0	40.5	39.1	46.1	56.6	36.7	8.0	8.2	8.8	8.9	10.5	12.1	8.0	
건강관리	-0.9	-1.7	5.9	11.0	10.9	0.0	-0.1	-0.1	-0.1	-0.2	34.8	35.5	34.8	32.5	30.0	35.5	22.1	4.9	5.0	4.8	4.5	4.6	5.5	3.9	
금융	-0.4	-1.2	5.1	-0.9	-7.2	0.0	0.0	0.2	0.7	0.5	15.2	15.3	15.4	14.7	17.1	22.1	14.4	2.1	2.1	2.1	2.0	2.5	3.3	2.0	
정보기술	-4.9	-6.0	-1.1	-18.2	-25.4	0.0	0.0	-0.0	0.6	0.5	16.0	16.8	17.1	15.8	21.5	31.6	14.1	4.7	5.0	5.1	4.6	6.0	9.6	4.0	
커뮤니케이션	-0.6	-3.0	2.9	2.9	-8.6	0.0	-0.0	0.1	1.0	0.7	29.5	29.8	30.3	29.9	40.8	82.9	28.5	5.9	5.9	6.0	5.8	8.3	19.5	4.7	
유틸리티	1.5	-2.8	-7.8	2.7	3.6	-0.0	-0.3	-0.3	-0.3	-0.1	16.1	15.8	15.8	16.5	14.9	22.0	12.7	2.0	2.0	2.0	2.2	2.0	3.0	1.7	
브라질	5.2	6.7	12.4	29.3	18.1	0.1	-0.0	-0.1	2.8	2.7	8.8	8.5	8.2	7.7	8.9	10.9	6.8	1.7	1.6	1.5	1.5	1.4	1.8	1.1	
에너지	4.2	12.6	12.5	65.6	65.4	0.2467	-0.1	-0.4	8.5	9.3	5.1	5.2	4.5	4.5	5.5	7.6	4.0	1.1	1.1	1.0	1.1	0.8	4.6	0.7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에너지, 소재, 자유소비재
소재	2.7	4.8	4.7	40.3	16.0	0.2169	0.1	-0.2	1.2	1.0	8.3	8.3	7.9	7.8	6.6	9.1	5.0	1.5	1.4	1.4	1.4	0.9	1.7	0.8	
산업재	3.7	4.1	16.2	26.8	9.4	0.0840	0.2	0.3	1.2	1.0	17.0	16.6	16.9	15.5	16.6	23.1	15.0	2.3	2.2	2.0	1.6	1.8	3.3	1.4	
자유소비재	8.6	11.7	38.5	74.9	68.6	0.1797	0.1	1.6	4.5	4.1	10.4	10.0	9.5	9.0	11.3	14.2	6.6	1.9	1.8	1.7	1.5	1.2	1.9	0.8	
필수소비재	3.0	-0.8	4.9	15.9	5.2	0.0662	-0.2	-0.3	-1.0	0.2	15.1	14.9	14.8	13.8	11.3	18.5	10.7	2.5	2.5	2.5	2.4	2.2	2.8	1.7	
건강관리	6.6	8.7	14.5	0.9	-2.3	0.0557	0.0	0.3	0.9	0.4	14.9	14.4	13.8	13.6	17.0	21.4	10.8	3.6	3.4	3.4	3.2	2.9	4.5	0.7	
금융	6.8	7.5	17.4	16.4	9.2	0.0164	-0.2	-0.1	1.7	1.2	9.4	9.0	8.6	8.0	9.7	11.2	6.6	2.0	1.9	1.9	1.7	1.9	2.3	1.1	
정보기술	0.0	0.0	0.0	0.0	0.0	0.0000	0.0	0.0	0.0	0.0	17.8	17.9	17.9	16.4	24.5	26.6	15.0	3.4	3.4	3.5	3.2	4.5	5.0	2.3	
커뮤니케이션	2.3	-1.2	-10.9	-5.9	-1.7	0.0332	-0.1	-0.0	1.9	1.6	10.3	10.3	10.3	11.5	13.6	15.7	9.7	1.7	1.7	1.7	1.8	1.9	2.5	1.0	
유틸리티	6.2	3.0	6.5	35.8	14.9	0.0499	-0.1	-0.4	1.6	0.6	13.2	12.7	12.6	11.8	12.3	14.7	8.6	1.7	1.6	1.5	1.5	1.3	1.8	0.9	

글로벌 스타일별 추이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종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3년간)	최소 (3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3년간)	최소 (3년간)
세계	1.3	-0.3	5.0	19.2	12.7	0.0	0.2	0.4	1.2	1.0	18.3	18.2	19.0	19.0	20.1	20.7	15.5	3.6	3.6	3.7	3.6	3.4	3.7	2.5	
대형주	1.3	-0.1	5.3	20.3	13.0	0.0	0.2	0.5	1.3	1.1	18.6	18.5	19.3	19.3	20.6	21.4	15.8	4.0	3.9	4.0	3.9	3.8	4.1	2.7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중형주	1.1	-1.3	3.6	13.1	11.3	0.0	0.1	0.3	0.8	0.6	17.1	17.0	17.6	17.2	17.6	18.1	13.9	2.4	2.3	2.4	2.3	2.2	2.4	1.7	→소형주
소형주	1.5	-0.1	4.8	20.8	16.7	0.0	-0.3	-0.0	1.0	0.7	17.4	17.3	16.7	16.5	17.7	18.0	13.2	1.4	1.4	1.3	1.7	1.6	1.8	1.1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성장	1.4	-1.4	2.5	15.8	8.8	0.0	0.2	0.5	1.1	0.9	23.2	23.1	24.7	25.6	27.4	28.8	21.9	6.4	6.4	6.6	6.8	6.8	7.2	4.8	→중형주
가치	1.1	0.9	7.6	22.3	16.8	0.0	0.2	0.4	1.3	1.2	15.2	15.1	15.5	15.1	15.4	16.6	11.7	2.5	2.5	2.5	2.4	2.2	2.6	1.6	
미국	0.5	-0.5	4.7	19.1	12.8	0.0	0.2	0.5	1.3	1.1	19.5	19.3	20.3	20.5	22.2	22.9	17.2	4.6	4.5	4.7	4.6	4.5	4.8	3.3	
대형주	1.3	-0.2	5.1	20.2	13.1	0.0	0.2	0.5	1.4	1.1	19.7	19.5	20.5	20.8	22.7	23.6	17.6	5.0	4.9	5.1	5.1	5.0	5.2	3.6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중형주	1.2	-2.2	2.1	11.5	10.7	0.0	0.1	0.2	0.8	0.6	18.2	18.1	18.8	18.7	19.2	20.1	14.9	2.9	2.9	3.0	2.9	2.9	3.1	2.2	→소형주
소형주	1.7	-0.8	4.8	23.0	18.8	0.0	-0.5	-0.2	1.1	0.6	19.1	18.9	17.7	17.6	19.5	21.1	14.8	1.4	1.4	1.3	2.0	1.9	2.2	1.3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성장	1.4	-1.7	2.3	16.5	8.7	0.0	0.2	0.5	1.2	1.0	24.6	24.5	26.3	27.7	29.8	31.5	23.0	8.6	8.6	9.0	9.6	9.6	10.4	6.3	→중형주
가치	1.1	0.8	7.1	21.1	17.0	0.0	0.2	0.4	1.4	1.3	16.2	16.0	16.5	16.2	17.1	18.1	13.1	3.1	3.1	3.2	3.0	2.8	3.2	2.1	
일본	-0.2	1.6	3.8	35.0	21.7	0.0	0.3	0.7	1.7	1.4	16.1	16.3	16.7	17.0	16.6	19.1	12.3	1.9	1.9	1.9	1.8	1.6	2.0	1.1	
대형주	0.1	2.1	3.4	38.6	23.4	0.0	0.4	0.7	1.7	1.5	16.2	16.5	17.2	17.6	16.7	19.5	12.3	2.1	2.1	2.1	2.0	1.7	2.2	1.2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중형주	-2.1	0.2	5.2	25.6	17.0	0.0	0.1	0.5	1.6	1.2	15.2	15.6	15.4	15.3	16.3	18.7	11.4	1.4	1.5	1.4	1.4	1.3	1.7	1.0	→소형주
소형주	1.6	3.0	7.4	23.1	22.1	0.1	0.2	0.5	1.1	1.2	15.4	15.2	15.3	15.1	15.1	17.3	11.6	1.4	1.3	1.4	1.3	1.2	1.4	0.9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성장	-0.6	1.2	0.7	31.9	19.4	0.0	0.3	0.7	1.8	1.8	19.1	19.4	20.2	21.3	22.2	25.8	16.4	3.1	3.1	3.1	3.2	2.8	3.5	1.9	→가치
가치	-1.0	2.0	7.0	38.1	24.1	0.0	0.3	0.7	1.7	1.2	14.0	14.1	14.3	14.1	13.3	15.7	9.9	1.4	1.4	1.3	1.3	1.1	1.4	0.8	
유럽	-0.1	-1.5	4.5	18.3	9.9	0.0	0.1	0.2	0.9	0.7	15.1	15.0	15.5	15.0	14.9	16.3	11.6	2.3	2.3	2.3	2.2	2.0	2.3	1.6	
대형주	0.5	-1.6	4.4	18.6	9.8	0.0	0.1	0.2	1.0	0.8	15.1	15.1	15.5	15.0	15.0	16.6	11.6	2.4	2.4	2.4	2.3	2.1	2.4	1.7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중형주	0.1	-1.3	4.9	17.1	10.8	0.0	0.1	0.3	0.8	0.5	14.7	14.7	15.2	14.6	14.3	15.2	12.1	2.0	2.0	2.0	1.9	1.7	2.1	1.4	→소형주
소형주	-0.6	0.1	4.0	12.2	7.4	0.0	0.2	0.3	0.6	0.4	14.3	14.2	14.6	14.2	14.1	14.9	10.6	1.6	1.6	1.6	1.5	1.4	1.6	0.4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성장	-0.5	-2.2	1.5	12.6	7.0	0.0	0.1	0.3	0.8	0.7	19.8	19.8	20.6	20.6	21.3	25.2	18.9	3.7	3.7	3.8	3.7	3.8	4.4	3.4	→성장
가치	0.3	-0.8	7.4	24.2	12.9	0.0	0.1	0.2	1.2	1.0	12.2	12.2	12.4	11.7	11.5	13.0	8.6	1.7	1.7	1.7	1.6	1.4	1.7	1.1	

Global Asset Fund Flow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Weekly Flows (ETF+non ETF)		ETF Only		% of Asset (ETF+non ETF)			Comment
			최근1주	10주평균	최근1주	10주평균	최근1주	10주평균	Assets	
주식	선진국	Global	11,841.45	10,522.31	8,732.90	11,246.60	0.15	0.13	7,905,092	• 지난주 글로벌 자금 흐름은 선진국 주식, 선진국 채권, 신흥국 채권 위주 유입 흐름 전개 • 선진국 주식형 펀드는 8주 연속 유입세 지속 • 선진국 채권형 펀드는 31주 연속 유입세 지속 • 신흥국 채권형 펀드는 11주 연속 유입세 지속
		NorthAm	(5,998.76)	9,628.79	1,431.66	17,681.93	(0.03)	0.06	17,294,870	
		W.Europe	845.98	(425.62)	1,212.94	961.96	0.04	(0.02)	2,125,069	
		Asia Pacific	1,543.88	1,524.92	1,207.33	1,269.30	0.11	0.11	1,358,522	
		선진국 합	8,232.56	21,250.39	12,584.81	31,159.78	0.03	0.07	28,683,553	
	신흥국	GEM	2,204.07	1,636.35	1,619.46	1,990.34	0.15	0.12	1,421,961	
		Asia ex-JP	(7,219.60)	6,562.91	(6,637.05)	7,209.99	(0.48)	0.45	1,482,233	
		EMEA	10.61	98.08	(19.36)	31.60	0.02	0.20	51,043	
		LatAm	(385.43)	(195.35)	(418.25)	(198.20)	(0.65)	(0.33)	60,969	
		신흥국 합	(5,390.35)	8,101.98	(5,455.20)	9,033.72	(0.18)	0.28	3,016,206	
채권	선진국	Global	2,593.66	1,927.53	1,169.44	943.71	0.19	0.15	1,322,684	
		NorthAm	15,737.96	15,182.22	13,903.08	12,899.60	0.27	0.27	5,704,184	
		W.Europe	(1,511.85)	2,659.65	263.09	1,068.17	(0.07)	0.13	2,033,080	
		Asia Pacific	309.90	239.84	137.98	145.33	0.40	0.32	76,356	
		선진국 합	17,129.67	20,009.24	15,473.58	15,056.82	0.19	0.22	9,136,304	
	신흥국	GEM	322.08	567.47	99.27	152.43	0.08	0.14	392,132	
		Asia ex-JP	553.47	514.35	496.83	548.96	0.21	0.19	269,534	
		EMEA	190.28	45.49	74.41	(18.06)	0.40	0.10	47,227	
		LatAm	63.02	60.71	31.33	42.39	0.35	0.35	17,832	
		신흥국 합	1,128.85	1,188.02	701.83	725.72	0.15	0.16	726,724	

자료: EPFR, 하나증권

투자유망종목

Investment Point: 연준 긴축 우려 높아지면서 미 8월 CPI 경계감 확대. 9월 FOMC 이후 마이크론 실적 발표 주목

• 글로벌 증시는 미 고용 호조에 연준 긴축 우려 높아진 가운데 오픈AI 아스트라 공개 이후 AI, 반도체 업종 랠리 보이며 상승 흐름. 중동 긴장감 고조,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 10년물 국채금리 4.8% 돌파한 점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 9월 FOMC 앞두고 시장의 관심은 미국 8월 CPI(컨센서스: CPI YoY +3.4%, MoM +0.4%, 근원 CPI YoY +2.4%, MoM +0.2%)로 이동. 9월 FOMC 전까지는 물가, 금리 등 매크로 민감도 높을 것으로 보이나 9월 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진입하는 만큼 향후 실적 모멘텀에 대한 관심 높아질 전망. 투자유망종목은 엔비디아(NVDA.US), 발레로 에너지(VLO.US) 신규 편입

* 차주 실적 발표 예정 기업: -

종목	종목코드	국가	업종	시가총액 (조원)	편입일	편입 기준가	전일 종가	절대 수익률	상대 수익률
엔비디아	NVDA.US	미국	정보기술	7,473	9/8	230.36	신규	-	-
알파벳	GOOGL.US	미국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3,054	3/10	306.36	338.46	10.48%	-3.4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	미국	정보기술	1,545	1/6	312.15	1016.59	225.67%	213.08%
AMD	AMD.US	미국	정보기술	1,049	5/26	467.51	477.57	2.15%	-1.37%
캐터필러	CAT.US	미국	산업재	504	1/6	616.10	813.94	32.11%	19.52%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CRWD.US	미국	정보기술	294	3/10	108.53	213.10	96.35%	82.43%
발레로 에너지	VLO.US	미국	에너지	144	9/8	370.72	신규	-	-
블룸 에너지	BE.US	미국	산업재	100	1/6	103.87	252.87	143.45%	130.85%
레노버	0992.HK	중국	IT	64	9/1	30.58	30.36	-0.72%	-1.44%
자금광업	2899.HK	중국	소재	38	9/1	36.42	36.96	1.48%	0.76%

주1) 기준가는 편입일 전일 종가(미국/유럽 주식은 D-1일, 중국/홍콩 주식은 D일), 주간 단위로 종목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주2)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미국(USD), 유럽(EUR), 중국(RMB), 홍콩(HKD)

주3) 상대수익률은 각 종목별 편입일 기준 벤치마크(BM) 지수 대비 수익률을 의미. BM은 MSCI AC World Index

✓ 글로벌 투자유망종목 제외종목: 유나이티드 렌탈스 (종목 교체, 26/07/28~26/09/04, -10.47%),
씨게이트 테크놀로지 (종목 교체, 26/08/04~26/09/04, +2.19%)

엔비디아 (NVDA.US)**GPU·AI 가속기·네트워킹·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공급하는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7,473
편입일	9월 8일
EPS증감율(2025E)	+95.1%
PER(2025E)	24.80
PBR(2025E)	24.30

• Investment point

2QFY27 매출 962억 달러(YoY +106%), Non-GAAP EPS 2.22달러(YoY +120%)로 고성장 지속. 데이터 센터 매출은 890억 달러(YoY +117%)로 AI 인프라 투자가 실적을 견인.

3QFY27 매출 가이드스 1,080억 달러±2%, Non-GAAP 매출총이익률 74.0% 제시. Vera Rubin 양산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증설을 기반으로 성장 모멘텀 지속 전망

• Risk

하이퍼스케일러 AI CapEx 둔화 및 자체 ASIC 확산, 중국향 데이터센터 매출 제한에 따른 성장을 둔화

알파벳 (GOOGL.US)**DRAM, NAND 등 메모리 제품 포트폴리오 사업 영위**

국가	미국
업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가총액(조원)	3,054
편입일	3월 10일
EPS증감율(2026E)	+29.0%
PER(2026E)	28.70
PBR(2026E)	8.50

• Investment point

2QFY26 Review 매출액 1,198억 달러(YoY +24.0%), EPS 9.11 달러 기록

구글 클라우드 매출 248억 달러(YoY +82%), 영업이익 88억 달러로 급증

FY2026 가이드스 CapEx 중간값 2,000억 달러로 기존 1,850억 달러에서 상향 조정

• Risk

AI 수익성 부진으로 AI CapEx 둔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DRAM, NAND 등 메모리 제품 포트폴리오 사업 영위**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1,545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
PER(2026E)	76.60
PBR(2026E)	2.30

• Investment point

3QFY26 매출액 414.6억 달러(YoY +346%), Non-GAAP EPS 25.11 달러(YoY +1,215%) 기록

DRAM과 NAND 가격 전분기 대비 각각 60% 초반, 80% 중반 상승하며 서프라이즈 실적에 기여

4QFY26 가이드스 매출액 490~510억 달러, GPM 86%, EPS 30~32달러 제시

• Risk

전방 수요 약화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세 둔화

AMD (AMD.US)**CPU, GPU, APU, DPU 등 사업 영위하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1,049
편입일	5월 26일
EPS증감율(2026E)	+96.9%
PER(2026E)	48.16
PBR(2026E)	9.88

• Investment point

2Q26 매출 115.4억 달러(YoY +50%), 조정 EPS 1.66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 특히 데이터센터 매출이 67억 달러(YoY +107%)로 급증하며 전체 매출의 58%까지 확대

3Q26 매출 가이드스 130억 달러±3억 달러(YoY +41%), 조정 매출총이익률 56%를 제시

Helios-M1400 시리즈 랩톱을 통해 AI 가속기 시장 내 점유율 확대 기대

• Risk

빅테크의 CapEx 투자 둔화 및 AI 수익화 부진에 GPU, CPU TAM 축소

캐터필러 (CAT.US)**건설·광산장비, 산업용 엔진·가스터빈 및 발전 솔루션을 공급하는 글로벌 산업재 기업**

국가	미국
업종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504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27.4%
PER(2026E)	37.0
PBR(2026E)	20.1

• Investment point

2Q26 매출 205억 달러(YoY +24%), 조정 EPS 8.17달러로 큰 폭 성장. 조정 영업이익률도 21.9%→전년 17.6% 대비 개선되며 판매량 증가와 가격 효과가 동시에 실적을 견인

강한 신규 주문과 수주잔고 확대가 전 사업부로 확산되고 있어 미국 인프라·데이터센터·광산 투자 확대에 따른 중장기 실적 모멘텀 지속 기대

• Risk

글로벌 경기 및 건설·광산 투자 둔화, 원자재·관세 비용 상승 시 장비 수요와 영업마진 둔화 가능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CRWD.US)**엔드포인트, 클라우드 워크로드, 신원 및 데이터에 대한 클라우드 제공 보호 서비스 제공**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294
편입일	3월 10일
EPS증감율(2026E)	30.19
PER(2026E)	89.40
PBR(2026E)	19.38

- **Investment point**
2QFY27 매출 14.7억 달러(YoY +26%), 조정 EPS 0.31달러 기록. ARR은 58.4억 달러(YoY +25%), 순신규 ARR은 3.33억 달러(YoY +51%)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성장 가속
모든 에이전트 통제하고 방대한 데이터 활용하는 통합 보안 플랫폼으로서 보안 시장 점유율 확대 전망
- **Risk**
AI 기술 개발로 인한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대체 우려 확대

발레로 에너지 (VLO.US)**원유 정제와 휘발유·디젤·재생디젤·에탄올 등 운송연료를 생산·판매하는 북미 대표 정유기업**

국가	미국
업종	에너지
시가총액(조원)	144
편입일	9월 8일
EPS증감율(2026E)	+283.6%
PER(2026E)	8.7
PBR(2026E)	4.3

- **Investment point**
2Q26 조정 EPS 12.54달러, 순이익 37억 달러 기록. 정유 부문 조정 영업이익이 44억 달러로 전년 12.7억 달러 대비 급증하며 정제마진 강세가 실적 개선 견인
재생디젤 영업이익 7.17억 달러로 전년 적자에서 흑자 전환, 에탄올 영업이익도 3.18억 달러로 증가. St. Charles 정유공장 FCC 최적화 프로젝트 가동으로 고부가 제품 생산 확대 기대.
- **Risk**
국제유가 및 정제마진 하락, 경기 둔화에 따른 운송연료 수요 감소 시 이익 변동성 확대 가능

블룸 에너지 (BE.US)**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스템과 전해조 개발, 제조, 판매 기업**

국가	미국
업종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100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177.6%
PER(2026E)	123.5
PBR(2026E)	55.0

- **Investment point**
2Q26 매출 10.65억 달러(YoY +166%), 조정 EPS 0.78달러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기록
온사이트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블룸 에너지의 에너지 서버가 디지털 시대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
최근 데이터센터 관련 서비스 계약 평균 10~15년으로 기존의 6~7년 대비 증가
- **Risk**
타 전력 발전원 공급 병목 완화에 다른 SOFC 수요 둔화

레노버(0992.HK)**AI 서버 부문 실적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

국가	홍콩
업종	IT
시가총액(조원)	64
편입일	9월 1일
EPS증감율(2026E)	73.8
PER(2026E)	15.9
PBR(2026E)	5.1

- **Investment point**
전 사업 부문 실적 호조로 2Q26 실적 시장 기대치 크게 상회, 특히 서버 부문 OPM 역대 최고치 기록
AI 서버 수주(540억USD)가 1Q26(210억USD) 대비 두 배 이상 확대, 중장기 이익 성장을 견인할 전망
PC 수익성도 공급망 우위, 제품 Mix 개선, 가격 인상 등으로 경쟁사 대비 양호, 이익 추정치 상향 중
- **Risk**
원가 부담 상승에 따른 마진 악화, 서버/PC 출하량 부진

자금광업(2899.HK)**중국 대표 광산 기업, 원자재 업사이클 수혜**

국가	중국
업종	소재
시가총액(조원)	38
편입일	9월 1일
EPS증감율(2026E)	58.8
PER(2026E)	10.4
PBR(2026E)	3.3

- **Investment point**
구리·금·리튬에 걸친 다각화된 익스포처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원자재 업사이클의 수혜 예상
구리 원가 상승은 규모의 경제와 기술 개선으로 상쇄 예정, 중장기 구리 생산 증가 가시성 유효
금 사업 성장 순조롭게 진행 중, Chifeng Gold 인수를 통해 중국 내 중소형 금광 인수 예정
- **Risk**
구리·금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변동성 확대 및 광산 생산 차질·인수 자산 통합 지연 가능성

2026년 9월 2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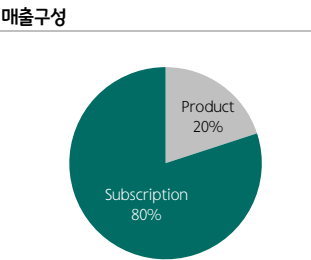
팔로알토(PANW.US)

놀라운 숫자, 그 이상의 스토리

미국

TP(컨센서스) 374.37 USD
CP(9.1) 362.09 USD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나스닥
산업 분류	사이버보안
주요 영업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www.paloaltonetworks.com
시가총액(십억USD)	295.1
시가총액(조원)	404.3
52주최고/최저(USD)	398.88/139.571
주요주주 지분율(%)	
뱅크드	7.46
블랙록	6.04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9.1 143.1 90.1
상대	7.2 132.2 71.1



Financial Data		(백만 USD)			
	2025	2026	2027F	2028F	
매출	9,222	11,480	13,796	15,747	
영업이익	2,652	3,356	4,088	4,808	
순이익	2,345	2,931	3,413	4,064	
EPS(USD)	3.34	3.84	4.08	4.75	
EPS(YOY, %)	17.8	15.0	7.0	17.0	
PER(배)	108.4	94.3	88.2	75.3	
PBR(배)	14.8	14.8	11.1	9.5	
배당률(%)	0.0	0.0	0.0	0.0	

주: Non-GAAP 실적 기준
자료: 팔로알토,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4QFY26: 모든 주요 지표 기대치 상회, 차세대 보안 ARR 91억 달러, +63% yoy

FY26년 4분기(7월결산) 모든 주요 지표가 가이드언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했다. 플랫폼화 채택 확대와 AI 가동을 위한 보안 수요 증대로 계약 규모 확대가 가속화되며 RPO는 34% YoY 증가한 212억 달러를 기록했다. 차세대보안(NGS)은 순신규 ARR 9.7억 달러(+98% yoy)를 달성, 가이드언스(8억)를 크게 상회, ARR 91억 달러로 63% 증가했다. 플랫폼화 채택은 순신규 220건(+44% yoy)으로 최대치를 경신, 2,500여개에 이르렀다. 4분기 매출액 34.1억 달러(+34% yoy), 조정 EPS 1.02 달러(+7.4%) 기록, 시장 컨센을 각각 2%, 5% 상회했다. M&A에 따른 마진 압박에도 불구하고 조정 OPM, FCF마진을 각각 29.6%, 38.4%로 견고하게 유지하며 예상치를 상회했다. 사이버아크와의 비용 시너지 효과가 계획보다 1~2개 분기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이다.

네트워크 보안(SASE) 강세, 인수기업(아이덴티티 보안 & 옴저버빌리티) 시너지 뚜렷

1)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에이전트 트래픽 폭증이 네트워크 보안 성장의 강력한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SASE 플랫폼의 레거시 보안 대체 규모가 YTD 기준 3분기 2억 달러에서 4분기 4.5억 달러로 크게 확대된 것이 고무적이다. 2)보안 운영 자동화 플랫폼 XSIAM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XSIAM ARR 7억 달러로 70%가깝게 증가했다. 3)크로노스피어 인수 완료 후 시랩과의 대형 계약을 획득, 옴저버빌리티 ARR이 5억 달러 이상으로 2개 분기 만에 2배 넘게 확대되었다. 4)인수한 사이버아크 아이덴티티 보안 사업을 '아이디라'로 리브랜딩 했다. 사이버아크와의 통합 시너지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 ACV가 27% 증가(인수전 +20%)했으며, 신규 고객사 200개 이상이 팔로알토 기존 고객이다. AI에이전트 도입이 본격화되면 머신 아이덴티티 폭증으로 이어지며, 아이디라 사업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보안 중장기 구조적 성장 요인 뚜렷, 사이버보안 최선호주

FY27년 1분기와 연간 가이드언스 주요 지표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4분기 대형 LLM 고객의 크로노스피어로의 이전에 따른 순신규 NGS ARR 증대가 1분기에도 일부 이어지면서 통상적인 1분기 계절성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FY27년 NGS ARR 성장 가이드언스는 +22~23%로 제시했으며, 연간 순신규 ARR의 60~61%가 하반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AI 가동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 보안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며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 12M FWD P/CF는 59배(2년 평균 37배)로 과거 추이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은 높아졌다. 그러나 1)사이버보안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2)중장기 성장성 격차 축소에도 CRWD(약 95배) 대비 여전히 큰 멀티플 격차, 3) FY27년 보수적인 가이드언스의 상향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주가 업사이드 높다고 판단된다. 실적 발표 후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가능성이 있으나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로 판단된다. 1)AI에이전트 본격 가동과 오픈소스 AI 확산은 사이버보안 시장의 중장기 구조적 성장 요인, 2)아이덴티티 보안과 옴저버빌리티 영역에서의 Cross-sell 본격화, 3)경영진의 탁월한 전략 실행력, 4)소수 통합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 상승세 강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보안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팔로알토를 최선호주로 제시하는 기존 관점을 유지한다.

2026년 9월 3일 | Global Equity

스노우플레이크(SNOW.US)

AI 시대, 더 빛나는 데이터 플랫폼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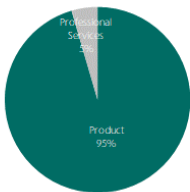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388.92 USD
CP(9.2) 305.84 USD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뉴욕거래소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www.snowflake.com
시가총액(십억USD)	106.0
시가총액(조원)	144.2
52주최고/최저(USD)	341.9498/118.3
주요주주 지분율(%)	
The Vanguard Group	9.13
BlackRock	6.42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4.3 79.6 33.4
상대	1.9 68.2 14.5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5	2026	2027F	2028F
매출	3,626	4,684	6,089	7,641
영업이익	232	490	822	1,182
순이익	301	466	715	1,017
EPS(USD)	0.83	1.25	1.90	2.68
EPS(YOY, %)	(15.3)	50.6	63.6	40.0
PER(배)	368.5	244.7	161.0	114.1
PBR(배)	20.2	34.4	47.7	34.3
배당률(%)	0.0	0.0	0.0	0.0

주: 조정(Non-GAAP) 실적 기준

자료: 스노우플레이크,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김재민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2QFY27 제품 매출 +37% yoy, 예상치 7ppt 상회, FY27년 가이드스 5ppt 상향

FY27년 2분기 제품 매출이 14.9억 달러로 37% YoY 성장, 가이드스를 7ppt 상회하며 2개 분기 연속 큰 폭의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지난 4분기 30%, 1분기 34%에 이어 37%로 성장 가속화를 견인한 요인은 기존 데이터 플랫폼의 강세와 더불어 AI 매출 기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간 제품 매출 백만 달러 이상 고객수가 48개 순증하고 기존 고객이 지출 규모를 확대하며 NRR은 12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강한 매출 성장과 AI 활용에 따른 비용 효율성 개선으로 조정 OPM은 15%로 YoY 4ppt 이상 개선되었으며 가이드스를 2.5ppt 상회했다.

FY27년 제품 매출 가이드스를 60.7억 달러로 상향, 성장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36%로 5ppt 올렸다(Observe 인수 효과 +1ppt). 지난 1분기 연간 가이드스를 이례적으로 4ppt 올리고 2분기에 5ppt 상향한 것은 AI가 구조적 성장 가속기로 확실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AI 제품 채택 가속화 → AI 매출 & 기존 데이터 플랫폼 사용량 증가 동시 견인

1)AI 구축을 위한 신규 워크로드 유입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AI-네이티브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고객군에서 성장 가속이 나타나고 있다. 2)AI 제품의 채택과 사용 속도가 기대보다 빠르다. AI 코딩 에이전트 ‘CoCo’ 도입 계정이 2천개 이상 순증, CoWork 사용 계정 수 QoQ 11% 증가하며 AI 매출 가속화를 견인했다. 3)AI 제품 사용 확대는 직접적인 AI 매출 증가 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 플랫폼으로의 워크로드 이전과 신규 use case 도입을 촉진해 기존 데이터 플랫폼의 소비 확대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4)LLM 모델 중립성으로 유연하게 여러 모델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확실한 경쟁우위로 작용하고 있다. 오픈 모델을 선택해서 비용을 최적화 하려는 수요가 있으며 업무나 워크로드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매칭시킬 수 있는 역량이 SNOW에게 성장 기회가 되고 있다.

AI가 확인시킨 데이터 플랫폼의 가치

3분기 제품 매출 가이드스 15.9억 달러로 38% 성장을 전망, 시장 컨센 대비 8ppt 더 빠른 성장을 제시했다. 조정 OPM은 15.5%를 예상, 컨센을 약 1.4ppt 상회했다. FY27년 연간 OPM 가이드스는 기존 13.5%에서 14.5%로 올렸다. SNOW의 FY27년 목표인 성장과 마진 동시 확장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AI가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FY27년 매출과 OPM 가이드스가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으나 여전히 보수적으로 산정된 점과 성장 모멘텀 강세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상향 가능성이 높다. 주가는 최근 2개월 20% 가깝게 상승, 12M FWD P/CF 72배로 과거 추이(2년 평균 60배)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은 높아졌다.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 23% 상승 기준 멀티플은 89배다. 단기간의 급등과 매크로 영향에 민감한 특성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차익실현에 따른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업의 AI 도입과 AI 에이전트 활용이 본격화될수록 데이터 플랫폼 가치는 더욱 부각될 전망이며, AI 매출과 코어 플랫폼 사용량 동반 가속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SNOW의 투자 매력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9월 3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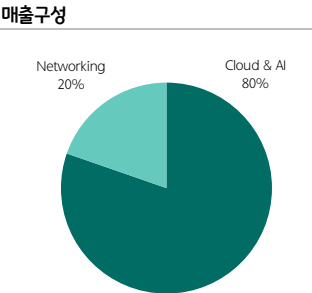
H.P. Enterprise Co. (HPE.US)

수요는 충분, 공급망 확보가 관건

미국

TP(컨센서스) 68.65 USD
CP(9.2) 51.83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기술 하드웨어, 스토리		
홈페이지	www.hpe.com		
시가총액(십억USD)	68.6		
시가총액(조원)	93.2		
52주최고/최저(USD)	64.25/19.84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Inc/The	13.46		
블랙록	10.12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8.2	134.2	127.1
상대	5.8	122.8	108.2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30,127	34,296	45,054	50,296
영업이익	3,168	3,353	6,201	7,387
순이익	2,655	2,637	4,962	5,919
EPS(USD)	1.99	1.94	3.44	4.08
EPS(YOY, %)	-7.4	-2.5	77.2	18.7
ROE(%)	10.5	10.5	16.9	17.6
PER(배)	9.8	12.6	15.1	12.7
PBR(배)	1.0	1.3	2.5	2.2
DPS(USD)	0.52	0.52	0.57	0.60

자료: Bloomberg, 마나증권


Analyst
강재규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4분기 주문의 매출 전환 가속 확인 필요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HPE)의 실적에서 시장참여자들이 실망한 점은 강한 수요를 매출로 빠르게 전환시키지 못한 점이다. 수요가 강하다는 점에서 중장기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델 테크놀로지스와 비교될 여지가 있다. 델은 AI 서버 매출 증가와 함께 이익을 개선까지 보여줬으나, HPE는 공급 제약으로 주문의 매출 전환이 늦고 AI 시스템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정상화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단기 상대 매력은 다소 낮다. 공급망 개선 여부가 관건이다. 회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4분기에 공급망이 개선된다면 평가 인상 효과와 실적에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다.

컨센서스를 상회한 FY 3Q26 실적

HPE의 FY 3Q26 실적은 매출액 122억 달러(YoY +33.7%, QoQ +14.4%), 매출총이익 49억 달러(YoY +80.4%, QoQ +25.2%), 영업이익 20억 달러(YoY +154.7%, QoQ +39.1%), EPS 1.11 달러(YoY +150.2%, QoQ +40.1%) 등이다. 각각 시장 컨센서스를 2%, 15%, 18%, 19% 상회했다. 영업이익률은 16.2%(YoY +7.7%p, QoQ +2.9%p), FCF는 9.58억 달러로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두 사업부(네트워킹과 클라우드 & AI) 매출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규화 기준) 전사 제품 주문은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수주잔고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매출총이익률은 40%(YoY +10.4%p, QoQ +3.5%p)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높아진 부품가격을 반영한 평가 정책, 비용 효율화, 매출 확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와 우호적인 계약 믹스 등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회사는 4분기부터 AI 시스템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Cloud & AI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AI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대형 거래 비중이 높고, 3분기에 우호적이었던 전통 서버의 계약 믹스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GPU-메모리 등 부품 가격 상승도 원가 부담 요인이다.

분기 및 연간 가이드런스

HPE 전사의 FY 4Q26 가이드런스는 143억 달러(YoY +48.3%, QoQ +17.5%), EPS 1.25 달러(YoY +101.1%, QoQ +12.5%)다.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7%, 10% 상회한다. 사업부별 매출 가이드런스는 네트워킹 30억 달러(YoY +12.0%, QoQ +5.4%), 클라우드 & AI 111억 달러(YoY +66.0%, QoQ +22.6%)다. 네트워킹은 컨센서스를 0.5% 하회했고, 클라우드 & AI는 13.1% 상회했다.

2026년 9월 2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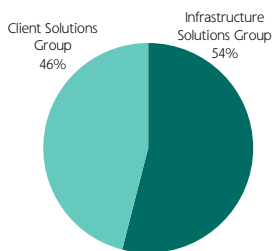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568.55 USD
CP(09.01) 425.00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기술 하드웨어, 스토리		
홈페이지	www.dell.com		
시가총액(십억USD)	274.6		
시가총액(조원)	375.2		
52주최고/최저(USD)	514/110.22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Inc/The	9.48		
블랙록	7.41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4.8	187.0	251.4
상대	2.9	176.1	232.4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5	2026	2027F	2028F
매출	95,600	113,538	174,047	200,478
영업이익	8,381	9,991	16,302	19,085
순이익	5,865	7,046	12,395	14,737
EPS(USD)	8.14	10.30	18.99	23.27
ROE(%)	-	-	741.3	221.3
PER(배)	12.7	11.1	22.4	18.3
PBR(배)	-	-	165.9	40.4
DPS(USD)	1.78	2.10	2.49	2.82

자료: Factset, 하나증권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Dell Technologies (DELL.US)

FY 2Q27: AI 수요와 이익 개선이 맞물리는 선순환

매출, 이익 동반 서프라이즈

델 테크놀로지스(이하 델)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델 제품의 양호한 수요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메모리와 GPU 등 서버 부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훼손을 걱정했었다. 우려와 달리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도 개선됐으며, 호실적을 기반으로 연간 실적 가이드런스도 상향했다. 핵심 사업부인 인프라 사업부의 이익 개선이 전사 수익성 향상을 주도했다.

강력한 AI 인프라 수요가 주변 제품으로 확산되면서 외형 성장과 이익 개선이 맞물리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견조한 AI 서버 수요는 전통 서버와 스토리지 수요로 확산되고 있다. 에이전틱 AI는 GPU뿐 아니라 CPU 컴퓨팅도 요구하기 때문에 전통 서버의 추가 수요를 만들고 있다. Dell-IP 스토리지 비중 상승과 매출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AI 서버의 이익 부담을 상쇄하며 인프라 사업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

컨센서스 상회한 FY 2Q27 실적

델의 FY 2Q27 실적은 매출액 470억 달러(YoY +58%), 매출총이익 99억 달러(YoY +78%, 매출총이익률 21.1%), 영업이익 59억 달러(YoY +160%, 영업이익률 12.6%), EPS 7.04달러(YoY +203%)다. 각각 컨센서스를 5%, 28%, 42%, 43% 상회했다. AI 서버뿐만 아니라 전통 서버,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전 부문이 매출 성장에 고르게 견인했다.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 22% 늘었지만 매출 대비 비중은 8.5%로 전년 동기 대비 2.5%p 낮아지며 비용 효율화가 이뤄졌다.

호실적의 핵심은 데이터센터 사업을 담당하는 ISG(Infrastructure Solutions Group) 사업부의 이익 개선 속도다. ISG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48억 달러(YoY +225%)로 매출 증가율(YoY +89%)을 크게 웃돌았고, 영업이익률도 15%로 전년 동기 대비 6.2%p 개선됐다. 판매량 증가와 함께 고수익 제품의 판매 비중이 확대된 덕분이다. 강한 수요 환경에서도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델은 조립형 비즈니스 특성상 부품 가격 상승이 마진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온 기업이다. FY 2Q27에는 가격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매출과 마진 확장이 동시에 나타났다. 영업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한 모습이다.

2026년 9월 3일 | Global Equity

GE 버노바(GEV.US)

스페이스X의 가스터빈 진출 코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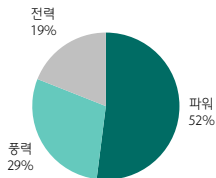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1,239.06 USD
CP(9.2) 921.94 USD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NYSE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전기 장비
홈페이지	www.gevernova.com
시가총액(십억USD)	245.5
시가총액(조원)	333.6
52주최고/최저(USD)	1,195.9/530.2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9.71
FMR	8.17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6.9) 4.6 59.0
상대	(9.3) (6.8) 39.5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34,935	38,068	46,227	52,864
영업이익	1,027	1,388	4,669	8,062
순이익	578	1,984	4,304	6,689
EPS(USD)	1.98	7.19	16.18	24.61
EPS(YOY, %)	NA	263.1	125.0	52.1
ROE(%)	91.5	91.5	49.3	39.2
PER(배)	48.4	35.9	38.6	37.6
PBR(배)	9.5	15.8	16.9	13.1
배당률(%)	0	0	0.2	0.3

주: 2024년 4월 분사
자료: GE버노바, Bloomberg 시장예상치, 하나증권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스페이스X의 터빈 블레이드와 베인 진출 가능성 보도

8월 말 The Information은 스페이스X의 가스터빈 블레이드와 베인 파운드리를 구축 중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오후 머스크는 X에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각각 연간 100GW의 태양광 캐패를 구축 중이나 천연가스는 태양광을 뒷받침하는 데 여전히 필요하며 스페이스X는 자체 주조를 통해 가스터빈 가동 시기를 최대 18개월 앞당길 수 있다”며 보도를 사실상 인정했다. GE버노바 등 기존 가스터빈 제조사 물량은 2030년까지 매진되었고 올해 말까지 2031년 물량의 절반 이상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이스X는 로켓 엔진을 만들었던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xAI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력 확보에 직접 나서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로켓엔진과 가스터빈은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나 ...

로켓 엔진과 가스터빈은 기반 기술을 공유하지만 작동 시간과 결정립 구조 요구에서 차이가 있다. 로켓 엔진과 가스터빈은 겉으로는 완전히 다른 기계로 보이지만 ‘연소 → 가스 팽창 → 에너지 추출’이라는 핵심 기술이 동일하다. GE버노바의 항공 파생형(Aeroderivative) 가스터빈 역시 처음부터 지상 발전용으로 설계된 대형 터빈과 달리 GE아어로스페이스의 항공기 엔진에 발전용 파워 터빈을 결합해 35~115MW 크기로 피크 시간대 대응을 위한 단순 사이클 발전에 주로 사용된다. 다만 가스터빈 블레이드는 장기간 연속 가동하는 것과 달리 로켓 엔진은 초~분 단위의 짧은 작동 시간을 가져 순간적 강도가 중요하다. 주조 과정에서 요구되는 결정립 구조 측면에서도 고성능 가스터빈 블레이드가 요구하는 방식(단결정)이 로켓 엔진이 요구하는 방식(등축정)보다 난이도가 높다. 따라서 스페이스X의 가스터빈 블레이드-베인 주조 능력은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

수율 안정화, 인력 문제 등으로 M/S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이번 스페이스X의 가스터빈 진출이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스페이스X의 부지 매입 시기는 2026년 3월~6월경이다. 공장 준공과 수율 안정화, OEM(GE버노바)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최소 2030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가스터빈 주조 기술은 암묵지적 성격이 강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전문 분야인데, 보도된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가스터빈 블레이드-베인 엔지니어 채용을 시작했다면 인력 병목 문제도 피할 수 없다. GE버노바 역시 작년 신사업으로 SOFC 진출을 발표하며 다각화하고 있다. 기술적 검증 부족과 타임라인, 인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스페이스X의 주조 사업 진출로 인한 GE버노바 M/S 축소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2026년 9월 4일 | Global Equity

Lenovo(0992.H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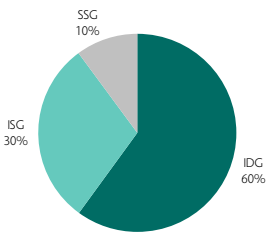
서버 시장에서 존재감 커지고 있는 글로벌 1위 PC 제조사

중국

TP(컨센서스) 47.56 HKD
CP(9.3) 30.54 HKD

Key Data			
국가	중국		
상장거래소	홍콩거래소		
산업 분류	IT		
주요 영업	IT 하드웨어		
홈페이지	www.lenovo.com		
시가총액(십억HKD)	379.3		
시가총액(조원)	66.2		
52주최고/최저(HKD)	36.16/8.52		
주요주주 지분율(%)			
Legend Holdings Corp	31.41		
Yang Yuanqing	6.38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28.2	214.3	179.3
상대	30.3	219.2	179.9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USD)				
투자지표	FY2025	FY2026	FY2027F	FY2028F
매출	69,077	83,075	106,330	125,307
영업이익	2,186	3,317	4,921	7,645
순이익	1,384	1,912	3,688	5,440
EPS(USD)	0.1	0.2	0.3	0.4
EPS(YoY, %)	26.3	57.7	54.6	56.4
ROE(%)	23.8	27.9	36.8	42.6
PER(배)	11.9	7.5	15.1	9.6
PBR(배)	2.8	1.9	4.8	3.5
배당률(%)	3.7	4.6	1.9	2.5

자료: Bloomberg, 아나증권



Analyst 백승혜 sh.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서버 사업

레노버의 서버 사업 부문(ISG)이 최근 2년간 빠르게 성장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ISG(Infrastructure Solutions Group) 부문 매출은 AI/범용 서버 수요 급증과 가격 상승으로 2024년/25년 YoY +51%/+37% 고성장에 이어 2026년 상반기 YoY +68%로 재차 가속화되었고, 영업이익률은 사업부 구조조정 효과가 더해지며 2025년까지 마이너스에서 1Q/2Q26 +3.6%/+9.1%로 상승했다. 고객사와 논의 중인 AI 서버 잠재 프로젝트 규모는 올해 1분기 210억달러에서 2분기 540억달러로 급증했으며, 경영진은 올해 4분기부터 AI 서버 프로젝트 매출 반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레노버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를 핵심 고객사로 확보했고, AI 특화 신흥 클라우드 사업자(Neocloud)와 국가 AI 프로젝트로 서버 사업을 확대 중이다.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CPU/GPU 기반 서버 수요가 모두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레노버의 범용/AI 서버 관련 실적 기여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PC 시장점유율은 경쟁사 대비 공급/가격 우위 통해 확대될 전망

레노버의 매출액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PC 사업의 경우 메모리 공급 제약으로 인해 출하량은 부진하지만 가격 상승과 중국 현지 메모리 조달을 통해 매출과 마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Q26 레노버의 PC 출하량은 YoY 5% 감소했으나 공급 부족 환경 덕분에 메모리 원가 상승분을 판가에 적극 전가하면서 제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매출 성장률은 1Q26 YoY +24%에서 2Q +27%로 가속화되었고, 영업이익률도 QoQ 20bp 상승한 7.1%를 기록했다. 2027년에도 글로벌 PC 공급 제약과 수요 약화로 출하량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나, 레노버는 글로벌 1위 제조사로서의 대규모 부품 조달 역량과 고가/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시장점유율 상승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버 부문 수익성 개선이 중장기 주가 리레이팅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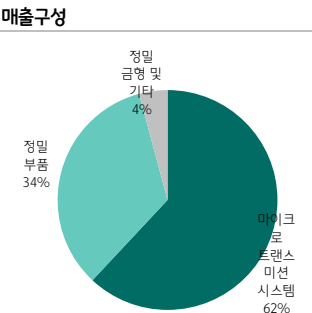
레노버의 수익 구조가 기존 PC 사업에서 고성장, 고부가가치의 ISG 사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향후 서버 사업부문이 레노버의 중장기 리레이팅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레노버의 서버 사업 성공 여부에 대해 신중한 시각을 유지해 왔으나, 향후 ISG 부문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면 이러한 시장의 우려 완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주요 경쟁사인 Dell의 현재 인프라 솔루션 사업에는 대략 20배 수준의 멀티플이 내재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레노버의 서버 사업 성과와 수익성 상승세를 감안하면 최근 3년 평균 PER인 약 9.5배 대비 리레이팅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026년 9월 7일 | Global Equity

중국

TP(컨센서스) 79.80 HKD
CP(9.4) 38.90 HKD

Key Data	
국가	중국
상장거래소	홍콩거래소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전기장비
홈페이지	www.szzaowei.net
시가총액(십억HKD)	23.7
시가총액(조원)	4.1
52주최고/최저(HKD)	94.8/38.5
주요주주 지분율(%)	
Zhaowei Financial	31.81
Haizhou Li	16.32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5.2) (45.4) -
상대	(15.7) (45.0) -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1,525	1,716	1,837	2,094	
영업이익	182	243	210	296	
순이익	225	255	-	-	
EPS(CNY)	0.9	1.1	-	-	
EPS(YoY, %)	25.3	12.8	-	-	
ROE(%)	7.1	7.6	-	-	
PER(배)	78.6	116.1	-	-	
PBR(배)	5.5	8.6	-	-	
배당률(%)	0.4	0.2	-	-	

자료: Bloomberg, 마나증권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조위기전(2692.HK)

마이크로 트랜스미션 기술, 휴머노이드의 손으로

중국 1위 마이크로 트랜스미션 시스템 기업

조위기전은 마이크로 트랜스미션 시스템 분야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중국 대표 정밀 구동 시스템 업체다. 마이크로 트랜스미션 시스템은 모터에서 발생한 동력을 기어박스를 통해 변환해 정밀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구동 시스템이다. 중국 업체 중 직경 12mm 이하의 초소형 모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드문 가운데, 올해 조위기전은 직경 8mm의 코어리스 모터를 글로벌 경쟁 업체 대비 40% 낮은 가격대에 출시했고, 현재 4mm급 제품을 개발 중이다. 글로벌 마이크로 트랜스미션 시스템 시장은 다수 업체가 경쟁하는 분산된 구조로, 조위기전의 시장 점유율은 글로벌 4위(1.4%), 중국 1위(3.9%)를 기록했다. 현재 매출의 약 64%가 스마트 자동차에서 발생하며 소비자, 의료기기, VR 등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해왔다. 2024년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텍스트러스 핸드를 출시하며 로봇 시장에도 본격 진출했고 선전에 8억위안을 투자해 텍스트러스 핸드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텍스트러스 핸드가 신성장 동력, Agibot & 유비테크에 납품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매출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하나 텍스트러스 핸드 매출은 2025년 2,400만위안에서 2028년 6억위안으로 증가해 향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주요 제품은 20kg 이상의 하중을 처리할 수 있는 가성비 모델 B06과 20 자유도를 갖춘 고정밀 모델 B20이다. 조위기전의 텍스트러스 핸드는 기존 텐던 방식 대비 제어 정밀도와 내구성, 양산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Agibot, Galbot, 유비테크 등 중국 주요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했으며, Tesla에도 소량의 부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H주 선호

조위기전의 가장 큰 경쟁력은 모터·감속기·컨트롤러 등 텍스트러스 핸드의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하는 수직계열화 역량이다. 이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과 유연한 납품 역량을 확보했으며, 하이엔드 시장에서도 글로벌 업체와의 기술 격차를 점차 축소하고 있다. 조위기전은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 확대와 텍스트러스 핸드의 기술 고도화에 따른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다만, 주요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이 텍스트러스 핸드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 리스크 요인이다. 조위기전은 완성형 텍스트러스 핸드뿐 아니라 모터·기어박스 등 핵심 부품 및 구동 모듈도 공급하고 있어, 고객사의 텍스트러스 핸드 내재화 과정에서도 부품 공급사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위기전 A주는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 프리미엄으로 12MF P/E 60배에서 거래되고 있는 반면, H주는 41배로 밸류에이션 격차가 크게 형성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H주를 선호한다.



HANA Global Weekly

Tel: 02-3771-사내번호 E-mail: @hanafn.com

이름	직책	담당분야	사내번호	E-mail
센터장				
황승택	센터장	리서치센터 총괄	7519	sthwang

글로벌투자분석실

글로벌 매크로· 투자전략팀	이재만	실장	국내/선진국투자전략	7547	duke7594
	김경환	팀장	중국/신흥국전략	7616	khstyle11
	이경수	수석연구위원	Quant	7518	gang
	김근아	선임연구원	신흥국전략	7698	geunak
	이철현	선임연구원	Global Quant	7723	lch2678
	김성온	선임연구원	중국분석	7520	seongeunk
	손일수	연구원	국내/선진국투자전략 RA	3629	ilsooson

채널전략팀

채널전략팀	김두언	팀장	국내외 주식시황	7509	kimdoun
	임승미	연구위원	포트폴리오	7786	seungmi_lim
	강윤형	선임연구원	포트폴리오	8024	kangyh
	박준우	선임연구원	시장대리인/포트폴리오 RA	8116	junwoo
	최욱	연구원	국내외 주식 시황 RA	7477	wookchoi

해외주식분석실

해외주식분석실	박승진	실장	글로벌 ETF	7761	sj81.park
	김재임	수석연구위원	선진국기업분석	7793	jamie
	백승혜	수석연구위원	중국기업분석	7521	sh_baek
	강재구	연구위원	선진국기업분석	3386	jaekoo.kang
	송예지	선임연구원	중국기업분석	8143	yeajisong
	김시현	선임연구원	미국/선진국기업분석	7513	sihyun_kim
	장치영	선임연구원	글로벌 ETF	3669	chiyoung.jang
	안기량	연구원	중국기업분석 RA	7736	giryanan
	송종원	연구원	선진국기업분석 RA	7261	1223sjw
	이재은	연구원	선진국기업분석 RA	3743	jaeeunlee
	신민건	연구원	글로벌 ETF RA	3269	mingun.shin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